

"파업이나, 타결이나"...삼성전자 노사, 오늘 '사후조정' 결론 낸다

등록 2026.05.12 05:00:00



[세종=뉴스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 등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2026.05.11. ppkjm@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진행 중인 사후조정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다. 이날 양측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를 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만큼, 막판 협상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노사는 전날부터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성과급 자원 규모'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에 대해 타협안을 찾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특별 보상을 통해 경쟁사보다 많은 수준의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설

명한다.

최대 관건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이번 사후조정에서 상한 폐지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은 전날 협의 도중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타협 여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며 "아직은 특별히 대화를 거부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들은 있는데, 타협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과정들이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후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 간 계획된 총파업 현실화 여부도 정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후조정 합의 불발 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인건비 증가 및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반면, 사후조정이 극적 타결에 이르면 파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 반도체 생산 및 대외적 신뢰도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후조정은 별도로 회의 제한 시간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이날 늦은 시간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 비율을 일부 높이고 상한을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다"며 "파업에 돌입하면 양측 모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한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